전주매일 CMYK

▶▶ 매일 INDEX

16면
6·1 지방선거 투표 현장 속으로

전주매일

2022년 6월 2일 목요일 (음 5월 4일) 제3029호

www.jjmaeil.com

대표전화(063)288-9700

비수술적 척추관절 통증치료 전문
세인 신경외과 의원
원장 곽경문 ☎(063)220-6600
전주시 완산구 효자 천변 2길 6번지

김관영 도지사 당선 · 교육감 서거석 우세

〈11시 45분 현재〉

김관영 더불어민주당 전북도지사 후보가 1일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에 위치한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도지사 당선이 확실시되자 지지자들과 함께 환호하고 있다.(사진 왼쪽) 서거석 전북교육감 후보도 1일 자신의 선거사무소에서 당선이 유력하다는 소식에 지지자들과 함께 기뻐하고 있다.

6 · 1 전국동시지방선거 전북지역 결과

김관영, 출구조사 결과부터 '압도'
"전북의 미래 먹거리 준비할 것"

서거석, 천호성 후보보다 약 5% 앞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의 미래, 투표로 유권자의 힘 보여줬다'

전북의 미래 4년을 책임지고 이끌어갈 '풀뿌리 일꾼'을 선출하는 6.1지방선거가 마감됐다.

1일 실시된 지방선거 투표는 도내 611개소의 투표소에서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확진자는 오후 6시30분부터 7시30분까지) 진행됐다.

결전의 날 도민들은 도지사와 교육감을 비롯해 14명의 시장·군수 및 도의원 40명, 시·군 의원 198명 등 모두 254명(비례 포함)을 선택했다.

한편, 김관영 당선인은 이날 출구조사 결과 조배숙 국민의힘 후보를 큰 격차로 따돌리고 당선될 것으로 예측됐다.

이날 KBS·MBC·SBS 등 지상파 3사가 합동으로 실시한 출구조사 결과 김 후보는 82.4% 득표율을 기록할 것으로 예측됐다. 2위 조 후보는 17.6%로, 64.8%포인트 격차를 보였다.

또한, JTBC 출구조사에서는 김 후보가 85.2%, 조 후보가 14.8%로 집계됐다.

김 당선인은 감사의 말씀을 통해 "뜨거운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신 도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오늘 도민 여러분께서는 새로운 전북시대의 문을 활짝 열어주셨다"고 인사를 전했다.

또한, 선거운동 기간 동안 새로운 전북을 만드는 길에 동행한 국민의힘 조배숙 후보에게도 심심한 위로와 격려를 전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 전라북도는 이대로 정체하느냐, 산업생태계 대전환에 성공해 동반성장을 이뤄내느냐의 분수령 위에 서 있다"며 "전라북도의 새로운 도지사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전북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하고 전북의 미래 먹거리를 준비하는 도지사가 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육감 선거의 경우 오후 11시 45분 기준 서거석 후보가 44.17%로 우세를 달리고 있다. 39%를 얻고 있는 천호성 후보보다 약 5% 앞서고 있다.

서거석 후보는 "전북교육 발전의 막중한 책임을 맡겨 주신 도민 여러분의 뜻을 겸허하게 그리고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이번 선거를 통해, 전북교육의 변화를 바라는 도민들의 열망을 많이 들었다"고 전했다.

그는 "그 뜻을 받들어 '학생중심 미래교육'으로 전북교육을 바꿔 나가겠다. 전북교육 희망의 대전환으로 활기차고 미래지향적인 교육현장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유호상 기자 · 장은성 기자

지선 전북 투표율 48.7%

지난 2018년보다 투표율 16.5%p 하락
시군별로 순창군 77.8%로 가장 높아
전국 잠정치 50.9%, 광주 · 대구 다음으로 낮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본 투표일인 1일 전북지역 최종 투표율이 역대 최저치인 48.7%(우편 및 관내 사전투표 합산)로 최종 집계됐다.

전북은 처음으로 지방선거에서 40%대 투표율을 기록했다.

전북 역대 지방선거 투표율은 1회 73.7%, 2회 57.8%, 3회 55%, 4회 57.9%, 5회 59.3%, 6회 59.9%, 7회 65.2%를 기록했다.

전국 시·도 평균 투표율 잠정치는 50.9%로, 전북은 광주 37.7%, 대구 43.2% 다음으로 낮았다.

전북도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전북지역 유권자는 총 153만2133명으로 이 중 74만5584명(사전투표 37만8635명, 본투표 36만6949명)이 투표에 참여했다.

4년 전인 2018년 실시된 제7회 지방선거 최종 투표율 65.2%보다 16.5%p 낮다.

14개 시·군 중 순창군(77.8%)이 가장 높았고, 군산시(38.7%)가 가장 낮았다.

전주시 완산구의 경우 31만1508명 중 12만5418명이 투표해 40.3%의 투표율을 기록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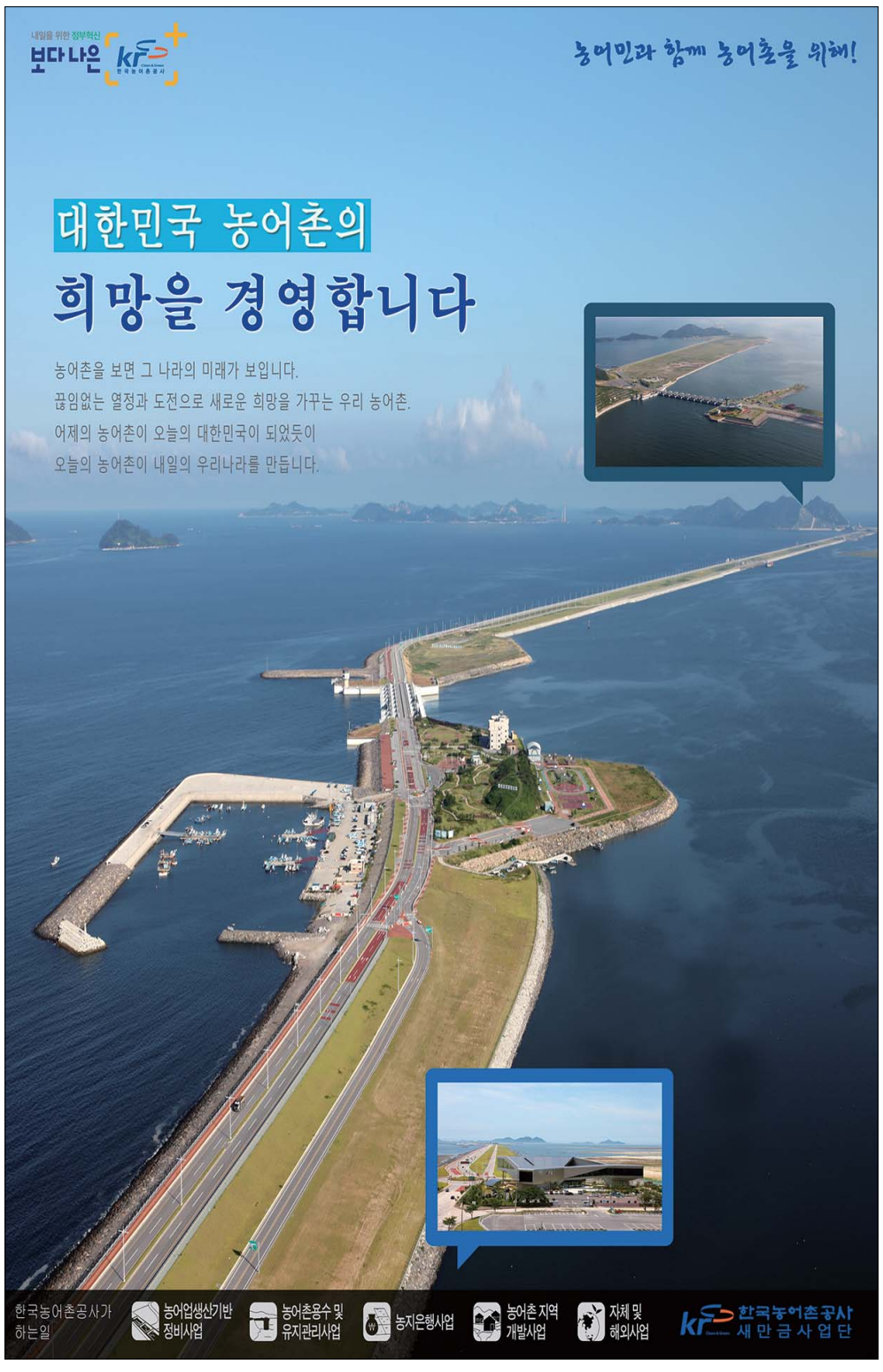
전주시 덕진구 투표율은 40.6%로 유권자 23만8934명 중 9만6942명이 투표했다.

군산의 경우 전체 22만4926명의 유권자 중 8만7129명이 투표에 나서 38.7%의 투표율을 보였다.

익산은 전체 23만9077명의 선거인 수 중 10만7241명이 투표했으며 투표율은 44.9%다.

정읍은 전체 유권자 9만3307명 중 5만4281명(58.2%), 남원 6만9007명 중 4만4515명(64.5%), 김제 7만2358명 중 4만2673명(59.0%)이 투표에 참여했다.

완주의 경우 전체 유권자 7만8284명 중 4만1520명(53.0%), 진안 2만2634명 중 1만6616명(73.4%), 무주 2만1279명 중 1만6270명(76.5%), 장수 1만9380명 중 1만4593명(75.3%)이 투표권을 행사했다.

임실지역에서는 총 2만4346명 중 1만7639명(72.5%), 순창 2만3893명 중 1만8594명(77.8%), 고창 4만7581명 중 3만4656명(72.8%), 부안 4만5614명 중 2만7497명(60.3%)이 투표에 참여했다.

/유호상 기자